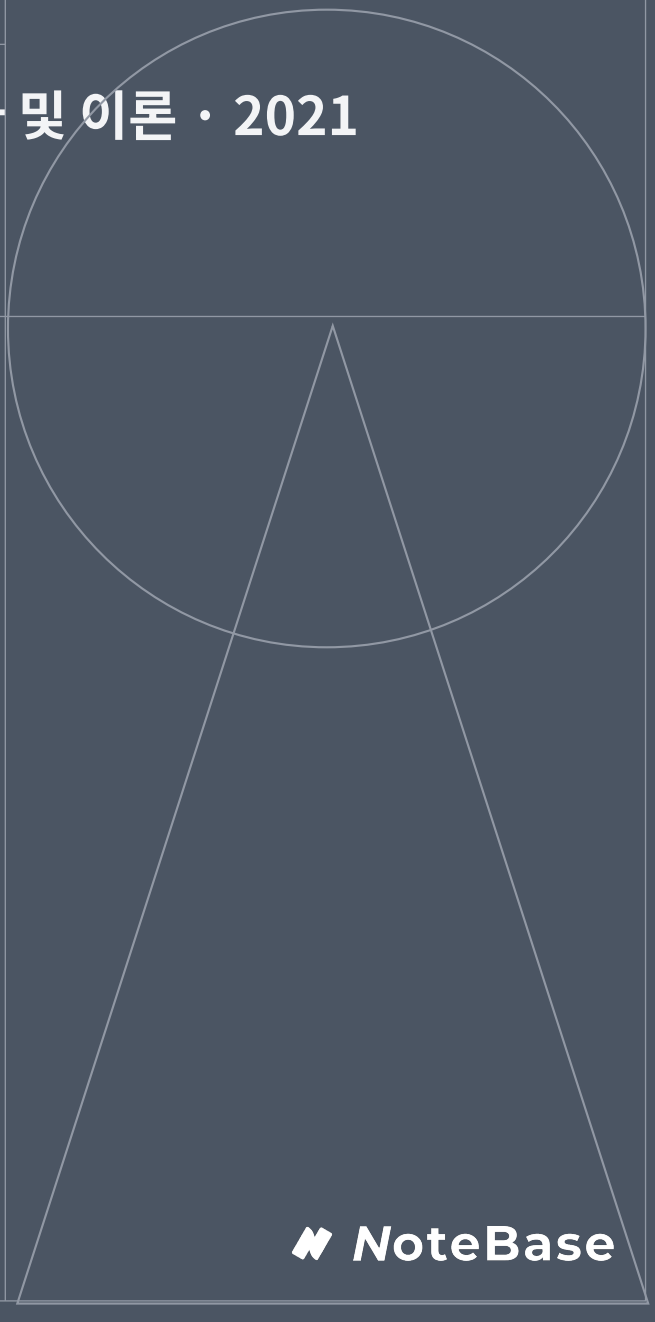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21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21

문 1. 고대 로마의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신화에 등장하는 아도니스(Adonis)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주택 지붕을 화분으로 가꾸는 옥상정원이 유행했다.

② 하드리아누스 황제 빌라(Villa Adriana)는 하나의 주축선을 따라 좌우대칭으로 정원이 배치되었다.

③ 도무스(Domus)의 내부에 원형의 주랑식 정원인 아트리움(Atrium)이 만들어졌다.

④ 라우렌틴 빌라(Laurentine Villa)는 소 플리니(Pliny the Younger)가 소유했던 해안형 별장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대 로마 주택과 빌라의 대표 공간, 정원 형식, 배치 특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아트리움은 도무스 중심부의 채광·집수용 중정이며 주랑식 정원이 아니다.
페리스틸리움은 기둥으로 둘러싸인 주랑식 정원이다.
로마 빌라는 하나의 직선축에만 묶인 엄격한 좌우대칭보다 지형과 기능에 따라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라우렌틴 빌라는 소 플리니의 해안형 별장으로 알려져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아도니스 정원은 얕은 용기나 화분에 식물을 빨리 길러 제의적으로 두는 임시 정원에 가깝다.
틀린 부분은 "주택 지붕을 화분으로 가꾸는 옥상정원이 유행했다"이다.
올바르게는 아도니스 정원은 신화적 애도 의식과 연결된 일시적 화분 정원으로 이해하는 편이 맞다.

② X
하드리아누스 황제 빌라는 여러 건물군과 수공간이 넓게 분산된 복합 별궁으로, 하나의 주축선을 따라 엄격한 좌우대칭으로만 정원이 짜인 사례가 아니다.
틀린 부분은 "하나의 주축선을 따라 좌우대칭으로"이다.
올바르게는 다양한 축과 공간이 지형에 맞추어 복합적으로 전개된 빌라로 본다.

③ X
아트리움은 도무스의 중심 중정 또는 홀로서 채광과 배수를 위한 공간이다.
틀린 부분은 "원형의 주랑식 정원인 아트리움"이다.
올바르게는 주랑식 정원은 페리스틸리움이며, 아트리움은 중앙 중정이다.

④ O
라우렌틴 빌라는 소 플리니가 소유한 해안형 별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서간을 통해 공간 구성과 생활상이 전해진다.

오답 포인트

③처럼 아트리움과 페리스틸리움을 서로 바꾸어 놓는 선지가 가장 흔한 함정이다. ②는 로마 빌라를 후대의 축대칭 정원처럼 단순화한 표현이어서 시대별 공간 구성 차이를 놓치면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로마 조경 문제는 먼저 공간 이름의 기능을 구분하면 된다. 아트리움은 집의 중심 중정, 페리스틸리움은 주랑식 정원, 빌라는 입지와 생활 방식에 따라 해안형·교외형으로 본다. 여기에 "하나의 축선" 같은 절대적 표현이 나오면 실제 공간 구성이 더 복합적인지부터 점검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아트리움은 중정, 페리스틸리움은 주랑식 정원, 라우렌틴 빌라는 소 플리니의 해안 별장이다.

NoteBase

문 2. 르네상스 시대 서양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의 튜더 왕조 시기에 네덜란드 양식의 영향으로 토피아리가 도입되고, 대규모 튤립화단이 조성되었다.

② 벨베데레원은 이탈리아 노단 건축식 정원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③ 보르 뷔 콩트는 남북 1,200m, 동서 600m 규모로, 주축선상에 자수화단, 물의 산책로, 벽천, 소로, 동굴(grotto)이 연결되었다.

④ 르 노트르의 조경양식은 러시아와 미국의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쳤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르네상스 이후 서양 정원의 대표 양식과 정원·조경가의 연결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튜더기 영국 정원은 폐쇄적 구획, 매듭화단, 울타리, 토피어리가 중심인 초기 근세 정원이다. 반면 네덜란드 양식의 영향과 대규모 튤립화단 유행은 튜더기가 아니라 후대인 17세기 말 윌리엄과 메리(William & Mary) 시기에 영국에 들어온 현상이므로 시대가 다르다.
벨베데레원은 브라만테가 설계한 바티칸의 계단식·노단식 구성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의 전형을 보여준다.
보르 비 콩트는 장축을 따라 자수화단과 수경시설이 전개되는 프랑스 정형식 정원의 선구적 작품이다.
르 노트르는 장축, 원근, 대규모 축선 구성을 체계화하여 유럽 정원뿐 아니라 바로크적 도시계획에도 영향을 주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시대 착오이다. 토피어리 자체는 튜더기 영국 정원(매듭화단, 울타리, 토피어리)에서도 나타나므로 도입 사실만 보면 틀렸다고 하기 어렵다. 문제가 되는 핵심은 "네덜란드 양식의 영향"과 "대규모 튤립화단"을 튜더기(1485~1603년)에 붙인 점이다. 네덜란드 양식의 영향과 튤립화단의 대규모 유행은 튤립 열풍이 일어난 17세기(1630년대 네덜란드) 이후, 특히 17세기 말 윌리엄과 메리 시기에 영국에 유입된 후대의 현상이다. 따라서 올바르게는 "튜더기 영국 정원은 폐쇄적 구획과 매듭화단, 토피어리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네덜란드풍 영향과 대규모 튤립화단은 후대(17세기 말)에 나타났다"가 된다.
② O. 벨베데레원은 경사진 지형을 노단과 계단으로 처리한 르네상스 정원의 대표 사례로, 이탈리아 노단 건축식 정원이 확립되는 계기로 평가된다.
③ O. 보르 비 콩트는 남북 약 1,200m, 동서 약 600m에 이르는 장대한 주축선 위에 자수화단, 물의 산책로, 벽천, 소로, 동굴(grotto) 등이 연속되는 구성을 보이는 프랑스 정형식 정원의 대표작으로, 제시된 규모와 요소 서술이 실제 정원과 부합한다.
④ O. 르 노트르의 축선적 구성과 원근 강조 방식은 프랑스 정원에 그치지 않고 유럽 각지의 궁원과 러시아·미국의 바로크적 도시계획 발상에도 영향을 주었다.

오답 포인트

①은 토피어리라는 단어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튜더기 영국 정원의 핵심을 네덜란드풍 대규모 튤립화단과 연결한 부분이 함정이다. 시대와 양식의 대표 요소를 뒤섞으면 쉽게 틀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양 조경사 문제는 정원명이나 조경가 이름을 보면 먼저 시대와 국가를 확정하고, 그다음 대표 공간구성 요소를 연결해 판단한다. 영국 튜더기이면 매듭화단과 폐쇄적 구획, 이탈리아 르네상스이면 노단식 구성, 프랑스 정형식이면 장축과 자수화단을 먼저 떠올린다. 특히 네덜란드풍 영향과 튤립화단은 튜더기가 아니라 17세기 말 이후의 특징임을 함께 기억한다.

암기 포인트

튜더=매듭화단, 벨베데레=노단식, 보르 비 콩트=장축·자수화단, 르 노트르=프랑스 정형식 완성이다.

문 3. 15, 16세기 이탈리아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티볼리(Tivoli)에 위치한 빌라 카스텔로(Villa Castello)는 메디치(Medici) 가문의 의뢰로 조성되었다.
ㄴ. 미켈로초(Michelozzo)는 빌라 카레지(Villa Careggi)의 설계에 참여했다.
ㄷ. 벨베데레 정원(Cortile del Belvedere)은 로마 바티칸 궁전에 있는 정원으로 트리볼로(Tribolo)가 설계했다.
ㄹ. 빌라 파르네제(Villa Farnese)는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높은 곳에 위치했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5, 16세기 이탈리아 정원의 대표 사례를 위치, 설계자, 후원 가문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빌라 카스텔로는 메디치 가문과 관련된 정원이지만 티볼리가 아니라 피렌체 인근 카스텔로에 있다.
빌라 카레지는 메디치가의 별장으로 미켈로초가 설계에 참여한 사례이다.
벨베데레 정원은 바티칸의 벨베데레 궁과 교황 궁을 연결한 공간으로 브라만테와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빌라 파르네제는 카프라롤라의 높은 지형에 자리해 주변 도시를 조망하는 입지 특성이 중요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ㄱ만 옳다고 본 선택지이다. ㄱ은 메디치 가문의 의뢰로 조성되었다는 부분은 맞지만, 빌라 카스텔로의 위치를 티볼리라고 한 것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티볼리(Tivoli)에 위치한"이다. 올바르게는 피렌체 인근 카스텔로에 위치한 빌라 카스텔로이다.

2번 X
ㄱ, ㄹ이 옳다고 본 선택지이다. ㄹ은 빌라 파르네제가 높은 곳에 있어 도시를 조망하는 입지라는 점에서 맞다. 그러나 ㄱ이 위치 오류로 틀리므로 이 선택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올바른 조합은 ㄹ에 더해 ㄴ이 포함되어야 한다.

3번 O
ㄴ, ㄹ이 옳다고 본 선택지이다. ㄴ은 미켈로초가 빌라 카레지의 설계에 참여했다는 내용으로 맞다. ㄹ도 빌라 파르네제가 고지대에 위치해 조망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므로 맞다. 따라서 옳은 설명만 묶은 선택지는 3번이다.

4번 X
ㄴ, ㄷ, ㄹ이 옳다고 본 선택지이다. ㄴ과 ㄹ은 맞지만 ㄷ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트리볼로(Tribolo)가 설계했다"이다. 올바르게는 벨베데레 정원은 바티칸 궁정의 공간이며 브라만테가 설계한 것으로 본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정원 이름은 익숙하게 제시하고 위치나 설계자를 바꿔 끼우는 방식으로 함정을 만든다. 특히 메디치 가문과 트리볼로라는 이름이 실제 이탈리아 정원사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ㄱ과 ㄷ을 모두 맞는 문장처럼 오인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르네상스 정원 문제는 정원명만 보지 말고 위치, 후원 가문, 설계자를 따로 분리해 확인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한 문장 안에 세 요소 중 하나만 바뀌어도 전체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된다.

암기 포인트

카스텔로는 메디치와 연결되지만 티볼리가 아니고, 벨베데레는 브라만테, 카레지는 미켈로초, 파르네제는 고지대 입지이다.

NoteBase

문 4. 서양의 조경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르 노트르는 공간을 기하학적 요소로 파악하고, 정원을 거대한 규모로 확장시켰다.

② 챔버(William Chambers)는 풍경식 정원을 완성한 이론가이자 설계자였다.

③ 스틸(Fletcher Steele)은 1920년대 미국의 대표적 모더니스트로서, 대표작으로 초아트장원(Mabel Choate's Estate)을 들 수 있다.

④ 에크보(Garrett Eckbo)는 비대칭의 기하학적 설계를 창안하였으며, 평면설계에서 축에 변화를 주기 위해 대각선을 사용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양 조경사의 대표 인물과 그 인물의 양식·작품·설계 경향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르 노트르: 프랑스 정형식 정원, 기하학, 장대한 축선과 원근 구성으로 공간을 확대하였다.
캠버: 윌리엄 체임버스, 중국풍·오리엔탈 가드닝 논의와 큐 정원 설계로 알려진 인물이다.
스틸: 미국 초기 모더니즘 조경가로, 머벨 초에이트와의 협업으로 나움키그 정원을 남겼다.
에크보: 근대 조경의 대표 인물로, 비대칭 기하학과 대각선 구성으로 역동적 평면을 만들었다.

선지별 해설

1번 O: 르 노트르는 프랑스 정형식 정원의 전형을 만든 인물로, 공간을 기하학적 질서와 장대한 축선으로 조직하였다. 베르사유 정원처럼 원근과 축을 크게 펼쳐 정원을 거대한 규모로 확장한 설명과 맞는다.
2번 X: 틀린 부분은 "풍경식 정원을 완성한 이론가이자 설계자"라는 연결이다. 윌리엄 체임버스는 『동양식 정원론』과 중국 취향의 정원·건축으로 알려진 인물이지, 영국 풍경식 정원을 완성한 대표 설계자로 보기는 어렵다. 올바르게는 "캠버는 중국풍 정원론과 큐 정원의 설계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도로 고쳐야 한다.
3번 O: 플레처 스틸은 1920년대 이후 미국 모더니즘 조경을 이끈 인물로 평가되며, 머벨 초에이트와 협업한 나움키그 정원이 대표작으로 꼽힌다. 선지의 인물-작품 연결이 맞는다.
4번 O: 개릿 에크보는 비대칭의 기하학적 구성과 대각선 활용으로 평면에 긴장감과 변화를 준 근대 조경가이다. 축을 고정된 대칭으로 두지 않고 대각선으로 공간 흐름을 만드는 설명과 부합한다.

오답 포인트

2번은 "풍경식 정원"이라는 큰 흐름과 체임버스의 이름을 억지로 묶은 선지이다. 체임버스는 영국 자연풍 정원사 전체의 완성자로 보기보다 중국풍 정원론과 큐 정원의 인물로 기억해야 혼동이 줄어든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사 문제는 문장 전체를 읽기보다 인물명 다음에 바로 대표 키워드를 대입해 본다. 르 노트르는 정형·축선, 체임버스는 중국풍, 스틸은 나움키그, 에크보는 비대칭 기하와 대각선으로 연결하면 빠르게 판정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르 노트르=정형·대축선, 체임버스=중국풍, 스틸=나움키그, 에크보=비대칭 기하·대각선이다.

NoteBase

문 5. 소정원 설계에 관심을 가지고 『대중을 위한 정원(Gardens are for People)』을 발간하였으며, 도넬 가든(Donnel Garden)을 대표작으로 남긴 미국의 조경가는?

① 토마스 제퍼슨(T. Jefferson)

② 토마스 처치(T. Church)

③ 로렌스 헬프린(L. Halprin)

④ 크리스토퍼 터나드(C. Tunard)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미국 현대 정원가와 그 대표 저작·작품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토머스 제퍼슨: 몬티첼로와 버지니아대학교 설계로 알려진 미국의 정치가이자 정원 애호가이다.
토머스 처치: 『대중을 위한 정원(Gardens are for People)』의 저자이며 캘리포니아 현대 주거정원을 대표하는 조경가이다.
로렌스 헬프린: 도시 오픈스페이스와 보행 동선 설계로 유명하며 Freeway Park, Portland Open Space Sequence 등이 대표작이다.
크리스토퍼 터나드: 『Gardens in the Modern Landscape』를 쓴 근대 조경 이론가로 현대 정원론 정립에 영향을 준 인물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토머스 제퍼슨은 몬티첼로와 버지니아대학교 설계로 연결되는 인물이다. 틀린 표현은 『대중을 위한 정원』과 도넬 가든을 제퍼슨에게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토머스 처치와 연결된다.
② O. 토머스 처치는 『Gardens are for People』를 저술했고 도넬 가든을 대표작으로 남긴 미국 조경가이므로 문제의 설명과 일치한다.
③ X. 로렌스 헬프린은 도넬 가든 작업에 관여한 이력이 있으나, 이 문제의 핵심 짝인 『Gardens are for People』의 저자이자 도넬 가든의 대표 조경가로 묶이는 인물은 토머스 처치이다. 올바르게는 헬프린은 도시 공공공간 설계로 대표되고, 문제의 설명은 토머스 처치에 해당한다.
④ X. 크리스토퍼 터나드는 『Gardens in the Modern Landscape』로 알려진 근대 조경 이론가이다. 틀린 표현은 도넬 가든과 『대중을 위한 정원』을 터나드에게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이 조합은 토머스 처치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도넬 가든에 로렌스 헬프린이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③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 문항은 보조 참여자가 아니라 저작과 대표작을 함께 묶는 대표 인물을 묻는 문제이므로 『Gardens are for People』의 저자인 토머스 처치를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매칭 문제는 이름 하나만 보지 않고 저서와 대표작을 한 묶음으로 확인한다. 저서가 분명하면 작품도 그 인물의 대표 경력과 일치하는지 함께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토머스 처치 = 『Gardens are for People』 = 도넬 가든이다.

NoteBase

문 6. 19세기 미국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와 캘버트 보의 그린스워드(Greensward)가 센트럴파크 공모전에 당선되었다.
ㄴ. 앤드류 잭슨 다우닝(Andrew Jackson Downing)이 몬티첼로(Monticello)를 조성했다.
ㄷ. 그린스워드의 특징은 비정형의 몰(mall), 산책로, 드라이브 코스 등 입체적인 동선체계이다.
ㄹ. 찰스 엘리어트(Charles Eliot)가 프로스펙트 공원(Prospect Park)을 계획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9세기 미국 조경에서 주요 인물과 대표 작품, 그린스워드 계획의 공간적 특징을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와 캘버트 보는 센트럴파크 공모전 당선안인 그린스워드를 함께 만든 인물이다.
앤드류 잭슨 다우닝은 미국 풍경식 정원과 교외주택 정원론을 확산한 인물이지만 몬티첼로의 조성자는 아니다.
몬티첼로는 토머스 제퍼슨의 자택이자 그가 조성한 경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센트럴파크의 Mall은 공원 내부의 대표적 직선 가로수 산책로이므로 '비정형의 mall'이라고 보기 어렵다.
프로스펙트 공원은 옴스테드와 보의 작품이며, 찰스 엘리어트는 보스턴 광역 공원체계와 연결되는 인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ㄱ만 포함한 선택지이다.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와 캘버트 보의 그린스워드는 1858년 센트럴파크 설계 공모전 당선안이므로 옳다.

② X
ㄱ은 옳지만 ㄴ이 틀려서 전체 선택지는 틀리다. 틀린 부분은 '앤드류 잭슨 다우닝이 몬티첼로를 조성했다'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몬티첼로는 토머스 제퍼슨이 조성한 경관이며, 다우닝은 미국 풍경식 정원론을 전파한 인물이다.

③ X
ㄱ은 옳지만 ㄷ이 틀려서 전체 선택지는 틀리다. 틀린 부분은 '비정형의 mall'이라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센트럴파크의 Mall은 직선적이고 정형적인 수목 가로이자 보행축으로 이해한다.

④ X
ㄷ과 ㄹ이 모두 틀려서 전체 선택지는 틀리다. ㄷ의 오류는 Mall의 성격을 비정형으로 본 점이고, ㄹ의 오류는 '찰스 엘리어트가 프로스펙트 공원을 계획했다'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프로스펙트 공원은 옴스테드와 보가 계획하였다.

오답 포인트

센트럴파크와 프로스펙트 공원은 19세기 미국 공원사에서 자주 함께 등장하므로 설계자를 서로 바꾸어 넣기 쉽다. 또 'mall, 산책로, 드라이브 코스'라는 단어만 보고 그린스워드의 전체 동선체계는 맞다고 판단해도, Mall 자체는 정형적 보행축이라는 점을 놓치면 ㄷ을 잘못 고르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19세기 미국 조경사는 인물명과 대표 작품을 먼저 짝지어 판단하면 빠르다. 옴스테드·보는 센트럴파크와 프로스펙트 공원, 다우닝은 미국 풍경식 정원론의 확산, 찰스 엘리어트는 보스턴 광역 공원체계로 연결해 두면 조합형 보기에서 오답을 쉽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옴스테드·보 = 센트럴파크 그린스워드·프로스펙트 공원, 제퍼슨 = 몬티첼로, 찰스 엘리어트 = 보스턴 공원체계이다.

NoteBase

문 7. 무로마치[室町]시대의 전통정원 가운데 은사탄(銀沙灘), 향월대(向月臺) 등의 이름을 가진 경관요소가 있는 곳은?

① 용안사(龍安寺)

② 평등원(平等院)

③ 모월사(毛越寺)

④ 자조사(慈照寺)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무로마치 시대 일본 정원을 대표 사찰명과 고유 경관요소 명칭으로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용안사: 방장 앞 석정으로 대표되는 가레산스이 정원이다.
평등원: 봉황당 앞 연못을 중심으로 한 정토식 정원이다.
모월사: 히라이즈미의 대표적 정토정원 유적으로 대천지와 야리미즈가 핵심 요소이다.
자조사: 은각사로 불리며 은사탄과 향월대가 있는 무로마치 시대 동산문화 정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용안사는 석정으로 유명한 가레산스이 정원이다. 틀린 부분은 '은사탄, 향월대'와의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용안사는 추상적 석정으로 식별하고, 은사탄·향월대는 자조사의 요소이다.
② X: 평등원은 아미타 신앙을 반영한 정토식 정원으로 이해한다. 틀린 부분은 '은사탄, 향월대'와의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평등원은 봉황당 앞 연못 중심의 정토정원으로 본다.
③ X: 모월사는 평안 말기 정토정원 유적으로 기억하는 곳이다. 틀린 부분은 '은사탄, 향월대'와의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모월사는 대천지와 야리미즈를 중심으로 한 정토정원이다.
④ O: 자조사(慈照寺)는 은각사로 불리며 은사탄과 향월대라는 고유 경관요소를 가진다. 제시된 명칭이 그대로 자조사를 가리키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평등원과 모월사는 모두 일본 정원사에서 자주 나오는 사찰이라 시대와 양식이 섞이기 쉽다. 그러나 은사탄·향월대처럼 고유명사가 제시되면 정원 양식 일반론보다 그 명칭이 붙은 정원을 바로 연결하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본 정원사 문항은 사찰명보다 고유 경관요소 이름을 먼저 본다. 은사탄·향월대가 보이면 자조사, 석정이 단서면 용안사, 봉황당과 정토정원이 단서면 평등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은사탄·향월대 = 자조사(은각사)이다.

NoteBase

문 8. 일본의 시대별 조경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헤이안[平安]시대의 신천원은 주유(舟遊) 지천(池泉)식 정원의 특성을 보여준다.

② 가마쿠라[鎌倉]시대에는 석조조경이 발달하여, 각도와 선이 강한 돌짜임이 풍미했다.

③ 무로마치[室町]시대에 작정된 서방사는 지천주유식과 고산수식 정원의 특징을 보여준다.

④ 에도[江戶]시대의 계리궁과 수학원이궁은 회유식정원의 예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일본 정원의 시대별 대표 양식을 구분하는 문제이며, 특히 주유식 지천정원과 회유식 정원, 고산수식 정원의 차이를 묻는다.

핵심 개념

헤이안 시대의 정원은 연못과 섬을 두고 배를 띄워 즐기는 주유식 지천정원의 성격이 강하다.
가마쿠라 시대에는 선종의 영향으로 석조조경과 강한 선의 돌짜임이 두드러진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고산수식 정원이 발달하고, 서방사처럼 연못을 중심으로 걷는 회유식 정원과 함께 나타난다.
에도 시대에는 계리궁, 수학원이궁처럼 회유식 정원이 완성도 높게 전개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신천원은 헤이안 시대의 대표적 궁원으로, 큰 못과 섬을 두고 배를 띄우며 감상하는 주유식 지천정원의 특징을 보여준다.

② O
가마쿠라 시대에는 선종 문화의 영향 아래 돌을 중시하는 석조조경이 발달하였고, 직선적이고 각이 살아 있는 돌짜임이 두드러졌다.

③ X
틀린 부분은 "지천주유식"이다.
서방사는 무로마치 시대 정원의 대표 사례로 볼 수 있으나, 배를 띄워 즐기는 주유식 정원으로 보는 것은 부정확하다. 올바르게는 지천회유식과 고산수식 정원의 특징을 함께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④ O
에도 시대의 계리궁과 수학원이궁은 연못과 동선을 따라 걸으며 경관을 감상하는 회유식 정원의 대표 사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지천주유식과 지천회유식은 모두 연못 중심 정원이라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은 서방사의 시대보다도 감상 방식이 배를 타는 정원인지, 걸어서 도는 정원인지를 바꾸어 함정을 만든 경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원 양식 문제는 먼저 감상 방식을 구분하면 된다. 배를 띄우면 주유식, 연못 둘레를 걸으면 회유식, 물을 추상화한 모래와 돌 중심이면 고산수식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헤이안은 배를 띄우는 주유식, 무로마치는 회유식과 고산수식, 에도는 회유식 정원의 전성기이다.

NoteBase

문 9. 주나라 『시경(詩經)』 영대편에 등장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영유(靈囿)

② 영포(靈圃)

③ 영소(靈沼)

④ 영대(靈臺)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경』 「영대」편에 나오는 왕실 조경 관련 어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영대(靈臺)는 왕이 올라 경관을 살피는 대이다.
영유(靈囿)는 사슴과 새 등을 기르던 왕실의 동물원·수렵원이다.
영소(靈沼)는 물고기가 뛰노는 왕실의 연못이다.
영포(靈圃)는 채소나 화초를 기르는 동산이라는 뜻이지만 「영대」편의 직접 등장 어휘는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영유(靈囿)는 「영대」편에 실제로 나온다. 시에 왕이 영유에 있다는 구절이 있어 왕실의 동물 사육·유락 공간을 가리킨다.

② X
틀린 부분은 '영포(靈圃)가 영대편에 등장한다'는 전제이다. 실제로 「영대」편에 나오는 공간 어휘는 영대·영유·영소이며, 영포는 이 편의 직접 등장 어휘가 아니다.

③ O
영소(靈沼)는 「영대」편에 실제로 나온다. 시에 연못 속 물고기가 뛰노는 장면이 묘사되어 왕실 연못을 뜻한다.

④ O
영대(靈臺)는 이 편의 제목이자 핵심 공간이다. 왕실의 대를 뜻하는 어휘로 「영대」편의 첫머리에 등장한다.

오답 포인트

영유·영소·영대는 모두 「영대」편의 실제 어휘이고, 영포만 빠진다. 한자가 모두 비슷한 왕실 조경 용어처럼 보여 영포도 실린 말로 착각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영대」 편은 대·유·소의 세 공간을 묶어 기억하면 된다. 높은 곳은 영대, 짐승은 영유, 물은 영소로 대응시키면 영포를 바로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영대는 대, 영유는 짐승, 영소는 연못, 영포는 「영대」 편 아님이다.

NoteBase

문 10. 양산보가 별서 소쇄원을 조영한 계기가 된 조선시대 사화(士禍)는?

① 무오사화

② 갑자사화

③ 기묘사화

④ 을사사화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양산보와 소쇄원의 조영 배경을 조선 전기 사화와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무오사화는 1498년 김종직 계열 사림이 사초 문제로 화를 입은 사건이다.
갑자사화는 1504년 연산군이 생모 윤씨 사건을 빌미로 대대적 탄압을 벌인 사건이다.
기묘사화는 1519년 조광조 등 신진사류가 훈구파에게 제거된 사건이다.
을사사화는 1545년 대윤과 소윤의 외척 갈등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무오사화는 김종직 계열 사림이 사초 문제로 화를 입은 사건이다. 양산보가 소쇄원을 조영하게 된 직접 계기로 연결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무오사화"이다. 올바르게는 "기묘사화"이다.
② X. 갑자사화는 연산군 대의 보복성 정치 탄압으로, 양산보가 소쇄원을 조영하게 된 직접 배경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갑자사화"이다. 올바르게는 "기묘사화"이다.
③ O.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화를 입자 그의 제자 양산보가 세상 뜻을 접고 낙향하여 소쇄원을 조영한 것으로 본다.
④ X. 을사사화는 1545년의 사건으로 시기상 소쇄원 조영의 직접 계기보다 늦다. 틀린 표현은 "을사사화"이다. 올바르게는 "기묘사화"이다.

오답 포인트

사화 이름을 연도만으로 막연히 외우면 헷갈리기 쉽다. 이 문항은 소쇄원의 조영 동기를 조광조와 연결하는지를 묻기 때문에, "양산보-조광조-기묘사화"의 연결고리를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원림의 조영 배경을 묻는 문항은 조영 주체와 교유 인물을 먼저 연결한 뒤, 그 인물이 연루된 정치 사건을 찾으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소쇄원은 양산보의 은거 원림이고, 계기는 조광조가 화를 입은 기묘사화이다.

NoteBase

문 11. 중국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졸정원은 소주 지방의 사가정원으로 왕헌신에 의해 조영되었다.

② 이화원에는 호심정, 비폭정, 선자정 등의 누정이 조성되었다.

③ 청 시대에 조성된 원명원에는 프랑스식 정원이 있다.

④ 청 시대에 조성된 승덕 열하의 피서산장은 궁전구, 호수구, 평원구, 산구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국 정원의 대표 사례를 정원별 성격과 구성 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국 정원은 소주의 사가정원, 베이징의 황실원림, 승덕의 이궁원림처럼 성격이 다르다.
졸정원은 소주의 대표적 사가정원이고, 이화원은 만수산과 곤명호를 중심으로 한 황실원림이며, 피서산장은 궁전구·호수구·평원구·산구의 4구역으로 이해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졸정원은 소주 지방의 대표적인 사가정원이며, 명대 왕헌신이 조영한 정원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이화원에는 호심정, 비폭정, 선자정 등의 누정이 조성되었다"는 표현이다.
이화원은 만수산과 곤명호를 중심으로 장랑, 불향각, 십칠공교 등을 대표 요소로 하는 황실원림이며, 문제에 제시된 호심정·비폭정·선자정은 이화원의 시설로 보기 어렵다. 즉 이화원과 무관한 누정 명칭을 이화원의 대표 시설인 것처럼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으며, 이 문항의 정답이 된다.

③ O
청 시대에 조성된 원명원에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설계에 참여한 서양루(西洋樓) 구역이 있어 유럽 바로크풍의 서양식 정원(제시문의 프랑스식 정원)이 도입된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O
승덕 열하의 피서산장은 청대 황실의 이궁원림으로, 궁전구·호수구·평원구·산구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설명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화원, 원명원, 피서산장 모두 청대의 유명한 황실 정원이라 시설명과 공간 구성을 서로 뒤섞어 출제하면 헷갈리기 쉽다. 2번은 이화원의 대표 구성 요소가 아닌 누정 명칭을 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원사 문제는 먼저 사가정원인지 황실원림인지 큰 분류를 잡고, 그 다음 대표 시설명이나 공간 구역이 어느 정원에 속하는지 연결해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졸정원은 소주 사가정원, 이화원은 만수산·곤명호의 황실원림, 피서산장은 궁전·호수·평원·산구의 4구역이다.

NoteBase

문 12.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가) 김조순의 별서 옥호정이 조영되었다.
(나) 경복궁 경회루 지원의 조영이 시작되었다.
(다) 덕수궁 석조전 앞뜰에 프랑스 평면기하학식 정원이 조성되었다.
(라) 창덕궁 후원에 애련정이 조영되었다.

① (나) → (가) → (다) → (라)
② (나) → (가) → (라) → (다)
③ (나) → (라) → (가) → (다)
④ (나) → (라) → (다) → (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 전기 궁궐 정원, 조선 후기 후원과 별서, 근대 서양식 궁정 정원의 시대 순서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나) 경복궁 경회루 지원의 조영 시작 — 태종대에 시작된 조선 전기 궁궐 정원이다.
2. (라) 창덕궁 후원의 애련정 조성 — 숙종 18년(1692)의 조선 후기 후원 시설이다.
3. (가) 김조순의 별서 옥호정 조성 — 순조대의 조선 후기 별서 정원이다.
4. (다) 덕수궁 석조전 앞뜰의 프랑스 평면기하학식 정원 조성 — 20세기 초에 나타난 근대 서양식 정원이다.

왜 이 순서: 조선 전기 궁궐 정원에서 조선 후기 후원과 별서를 거쳐 근대 서양식 궁정 정원으로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다)를 (라)보다 앞에 둔 점이 틀리다. 석조전 앞 프랑스식 정원은 근대 서양식 정원이라 애련정보다 훨씬 뒤 시기이다. 올바르게는 (다)는 마지막에 와야 한다.

② X
(가)를 (라)보다 앞에 둔 점이 틀리다. 애련정은 1692년 창덕궁 후원 시설이고, 옥호정은 순조대 김조순의 별서이므로 애련정이 먼저이다. 올바르게는 (라) 다음에 (가)가 온다.

③ O
(나) 태종대 경회루 지원 조영 시작 → (라) 숙종대 애련정 조성 → (가) 순조대 옥호정 조성 → (다) 20세기 초 석조전 앞 프랑스식 정원 조성의 순서가 맞다.

④ X
(다)를 (가)보다 앞에 둔 점이 틀리다. 옥호정은 조선 후기 별서이고 석조전 앞 정원은 근대 서양식 정원이므로 옥호정이 먼저이다. 올바르게는 (가) 다음에 (다)가 온다.

오답 포인트

조선 후기 시설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애련정과 옥호정을 뒤섞거나, 후기 별서와 근대 서양식 정원을 같은 후반 시기로 뭉뚱그리면 (가)와 (다)의 순서를 바꾸기 쉽다. 애련정은 숙종대, 옥호정은 순조대, 석조전 앞 정원은 20세기 초라는 층위를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형 문화사 문항은 각 대상을 조선 전기 궁궐, 조선 후기 후원, 조선 후기 별서, 근대 서양식 정원처럼 시대층으로 먼저 묶은 뒤 왕대나 조영 양식으로 세부 순서를 확정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경회루는 조선 전기, 애련정은 숙종, 옥호정은 순조, 석조전 앞 정원은 근대 서양식이다.

NoteBase

문 13. 고려시대의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월대 공원 내에는 석가산을 만들고 물을 끌어들여 연못을 만들었다.

② 만월대 후원 상춘정에서 곡연(曲宴)을 행하였다.

③ 내원서에서는 궁궐이나 관가의 뜰과 들을 조성하고 관리하였으며, 뜰과 화초를 전문적으로 가꾸는 직종도 있었다.

④ 수덕공원 내에는 만수정이란 정자를 지었으며, 넓은 격구장을 만들고 후원을 가꾸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시대 궁원 시설과 관리기구의 내용을 장소별로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만월대 궁원은 청연각의 연못과 석가산, 상춘정의 곡연 등으로 대표되는 고려 왕궁 정원 공간이다.
내원서는 궁원과 화초를 관리하던 고려의 원림 관리 기구이다.
수창궁 북원은 의종 때 괴석으로 가산을 꾸미고 만수정과 격구장을 둔 공간으로 전해진다.

선지별 해설

1번 O: 만월대 궁원에는 석가산을 만들고 물을 끌어들여 연못을 조성한 기록이 있어 옳다.
2번 O: 상춘정은 만월대 후원의 정자로 곡연을 행한 장소로 알려져 있으므로 옳다.
3번 O: 내원서는 궁원과 화초를 맡아 관리한 기구이므로 궁궐이나 관가의 뜰을 조성하고 관리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4번 X: 틀린 부분은 "수덕궁원 내에는 만수정이란 정자를 지었으며, 넓은 격구장을 만들고 후원을 가꾸었다"는 연결이다. 만수정과 격구장은 수덕궁원이 아니라 수창궁 북원에 관한 기록이다. 올바르게는 수창궁 북원에 괴석으로 가산을 꾸미고 만수정을 세우며 격구장을 둔 것으로 본다.

오답 포인트

만월대 관련 시설과 수창궁 북원 관련 시설을 서로 섞어 놓으면 헷갈리기 쉽다. 상춘정·석가산·연못은 만월대 계열이고, 만수정·격구장은 수창궁 북원 계열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조경사는 장소명과 시설명을 짝으로 묶어 판단하면 된다. 만월대는 상춘정·청연각·석가산, 수창궁 북원은 만수정·격구장, 내원서는 관리기구로 구분하면 정리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만월대는 상춘정과 석가산, 수창궁 북원은 만수정과 격구장, 내원서는 궁원 관리 기구이다.

NoteBase

문 14. 경복궁의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경회루의 방지에는 세 개의 원형의 섬이 축조되어 있다.
ㄴ. 아미산에 장대석을 쌓아 화계를 만들어 굴뚝, 수목, 석물을 배치했다.
ㄷ. 자경전에는 십장생 굴뚝, 함월지(涵月池), 낙하담(落霞潭)이 조성되었다.
ㄹ. 향원정에는 소나무를 식재한 두 개의 섬인 만세산이 위치한다.

①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복궁의 주요 조경 요소를 공간별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회루 연못은 방지 위에 세 섬을 두는 구성이지만 서쪽의 두 섬은 소나무를 심은 네모난 당주이다.
아미산은 교태전 뒤의 계단식 화계와 굴뚝, 함월지, 낙하담으로 대표된다.
자경전은 십장생굴뚝이 핵심 조경 요소이고, 향원정은 향원지 가운데 한 섬 위에 세운 정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ㄴ만 옳다. 아미산에는 장대석으로 화계를 쌓고 굴뚝, 수목, 석물을 두어 후원 경관을 구성하였다.
② X: ㄷ이 틀렸다. 틀린 표현은 "자경전에는 … 함월지, 낙하담이 조성되었다"이다. 실제로 십장생굴뚝은 자경전의 요소이지만, 함월지와 낙하담은 교태전 뒤 아미산 정원의 시설이다.
③ X: ㄹ이 틀렸다. 틀린 표현은 "향원정에는 … 두 개의 섬인 만세산이 위치한다"이다. 실제로 향원정은 향원지 가운데 한 섬 위의 정자이며, 두 섬에 소나무를 심은 만세산은 향원정의 설명이 아니다.
④ X: ㄱ과 ㄷ이 틀렸다. ㄱ의 틀린 표현은 "세 개의 원형의 섬"이다. 경회루 연못은 세 섬 구성을 말할 수는 있으나 서쪽 두 섬은 소나무를 심은 네모난 당주이므로 "세 개의 원형 섬"이라고 하면 틀린다. ㄷ도 함월지와 낙하담의 위치를 자경전으로 잘못 옮긴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자경전의 십장생굴뚝과 교태전 뒤 아미산의 함월지·낙하담을 한 묶음으로 외우면 ㄷ에 넘어가기 쉽다. 또 경회루의 세 섬 구성만 기억하고 섬의 형태와 위치를 놓치면 ㄱ을 맞는 설명처럼 보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복궁 조경 문제는 공간별 대표 요소를 먼저 묶어 판단한다. 자경전은 십장생굴뚝, 교태전 뒤 아미산은 화계·굴뚝·함월지·낙하담, 향원정은 향원지 중앙의 한 섬이라는 기준으로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자경전은 십장생굴뚝, 아미산은 화계와 함월지·낙하담, 향원정은 한 섬 위 정자이다.

NoteBase

문 15. 신라시대 귀족들이 곳곳에 별장을 짓고 철따라 옮겨가며 머물렀던 사절유택(四節遊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봄 - 동야택(東野宅)

② 여름 - 곡량택(谷良宅)

③ 가을 - 구지택(仇知宅)

④ 겨울 - 금입택(金入宅)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라 귀족의 사절유택 명칭과 계절별 대응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절유택은 신라 귀족이 계절에 따라 옮겨 머물던 별장 체계이다. 봄은 동야택, 여름은 곡량택, 가을은 구지택, 겨울은 가이택으로 대응된다. 금입택은 사절유택의 겨울 별장 명칭이 아니라 신라의 대표적 호화 저택 이름으로 알려진 별도의 개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봄-동야택의 대응은 사절유택의 올바른 짝이다.
② O
여름-곡량택의 대응은 사절유택의 올바른 짝이다.
③ O
가을-구지택의 대응은 사절유택의 올바른 짝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겨울-금입택"이다.
사절유택에서 겨울 별장은 금입택이 아니라 가이택이다.
금입택은 사절유택의 계절별 별장 명칭으로 넣을 수 없는 다른 저택명이다.

오답 포인트

금입택은 신라 관련 주거 명칭으로 자주 함께 언급되어 사절유택의 한 항목처럼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은 계절별 네 이름을 외웠는지보다 금입택이 별도의 명칭이라는 점을 구분하는지를 노린 문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절유택 문제는 먼저 계절별 4개 이름이 완결된 세트인지 확인하면 된다. 동야-곡량-구지-가이의 흐름에 들어가지 않는 명칭이 보이면 오답 후보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사절유택은 봄 동야, 여름 곡량, 가을 구지, 겨울 가이이다.

NoteBase

문 16. 창덕궁 후원의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사 지형을 처리하기 위해, 주합루 일원에는 5개의 석단(화계)을 조성하였다.

② 청의정은 궁궐 안의 유일한 초정으로 내부 천장은 매우 화려한 무늬와 채색으로 되어 있다.

③ 관람정은 겹지붕을 가진 6각의 정자로 한국 유일의 독특한 구조를 보여준다.

④ 옥류천 계류에는 청의정, 소요정, 태극정, 농산정, 취한정이 위치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창덕궁 후원 각 권역의 정자 형태와 배치, 그리고 주합루·옥류천 일원의 조경 특징을 정확히 대응시키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합루 일원은 경사진 지형을 다루기 위해 화계를 두어 구성한 공간이다.
청의정은 궁궐 안의 유일한 초가지붕 정자이며, 외관은 소박하지만 내부 장식은 화려한 편이다.
관람정과 존덕정은 자주 뒤바뀌는 조합이다. 관람정은 부채꼴 형태의 정자이고, 육각 평면에 겹지붕을 한 정자는 존덕정이다.
옥류천 권역에는 청의정, 소요정, 태극정, 농산정, 취한정 등이 배치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주합루는 경사진 지형 위에 세운 누각으로, 일원에 여러 단의 화계를 조성해 높이차를 처리하였다. 선지의 핵심은 주합루 권역이 화계로 경사를 정리한 공간이라는 점이며, 이는 맞는 설명이다.

② O
청의정은 궁궐 안에서 보기 드문 초가지붕 정자로 알려져 있으며, 소박한 초가 지붕과 달리 내부 단청과 장식은 화려한 대비를 이룬다. 따라서 유일한 초정이며 내부 천장이 화려하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③ X
틀린 부분은 '관람정은 겹지붕을 가진 6각의 정자'라는 표현이다. 관람정은 창덕궁 후원에서 한국 유일의 부채꼴 형태로 알려진 정자이다. 겹지붕을 가진 육각 정자는 관람정이 아니라 존덕정이다. 틀린 표현 → 관람정은 부채꼴 형태의 정자이고, 겹지붕을 가진 육각 정자는 존덕정이다.

④ O
옥류천 권역에는 청의정, 소요정, 태극정, 농산정, 취한정 등 소규모 정자들이 배치된다. 선지에 열거한 정자군은 옥류천 계류 주변 구성과 부합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관람정과 존덕정의 특징을 서로 바꾸어 외우면 ③에 걸리기 쉽다. '한국 유일의 독특한 구조'라는 말만 보고 맞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 독특함이 부채꼴인지 육각 겹지붕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후원 정자 문제는 정자 이름과 구조 키워드를 짝지어 판단하면 된다. 관람정은 부채꼴, 존덕정은 육각 겹지붕, 청의정은 초가지붕이라는 식으로 형태를 먼저 대입하면 선지의 진위를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관람정은 부채꼴, 존덕정은 육각 겹지붕, 청의정은 초가지붕이라는 대비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17. 창경궁의 통명전 지당(池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석난간을 둘린 석지(石池)이다.

② 지당의 석교는 무지개형 곡선 형태이다.

③ 석분에 심은 괴석과 앙련(仰蓮) 받침대석이 있다.

④ 지당은 정방형으로 네 벽을 자연석으로 쌓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통명전 지당의 평면 형태, 축조 재료, 석교와 석분·괴석 같은 부속 조형 요소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통명전 지당은 창경궁 통명전 곁에 조성된 궁궐 석지로, 장방형의 장대석 지당에 석난간을 두르고 석교와 석분, 괴석, 앙련 받침대석을 배치한 점이 핵심이다.
이 문항의 결정 차이축은 지당의 모양과 재료이다. 통명전 지당은 자연석 호안의 자연형 연못이 아니라 장대석으로 정교하게 쌓은 장방형 석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통명전 지당은 둘레에 석난간을 돌린 석지이다. 지당 자체가 궁궐식 석조 연못으로 조성된 점을 묻는 선지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② O: 지당 위의 석교는 완전히 평평한 보가 아니라 약한 아치감을 가진 보다리로 이해할 수 있다. 선지의 핵심은 지당 위에 곡선감을 띤 석교가 놓인다는 점이므로 타당하다.
③ O: 통명전 지당 안에는 석분에 배치한 괴석과 앙련 받침대석이 있다. 지당 내부의 장식 요소를 묻는 선지로서 맞는 설명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정방형"과 "자연석"이다. 통명전 지당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남북이 더 긴 장방형에 가깝고, 네 벽도 자연석 호안이 아니라 장대석으로 정교하게 쌓았다.

오답 포인트

궁궐 지당이라고 해서 자연석으로 쌓은 자연형 연못을 떠올리면 ④에 끌리기 쉽다. 이 문항은 통명전 지당이 자연형이 아니라 인공성이 강한 장방형 장대석 석지라는 점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궁궐 지당 선지는 먼저 평면이 장방형 석지인지 자연형 연못인지 구분하고, 다음으로 호안 재료가 자연석인지 장대석인지 본다. 그 뒤 석난간, 석교, 석분·괴석 같은 부속 요소를 확인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릴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통명전 지당은 장방형 장대석 석지에 석난간을 두르고, 석교와 석분·괴석, 앙련 받침대석을 갖춘다.

문 18. 조선시대의 조경 관련 문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양화소록』에는 정원식물의 특성과 번식법, 괴석의 배치법, 꽃을 기르는 법 등이 기록되었다.

② 『산림경제』의 훼목편에는 매화, 모란, 장미 등 19종의 식물의 특성이 설명되어 있다.

③ 『임원경제지』의 양화편에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 등 29종의 식물 특성과 재배법이 수록되어 있다.

④ 『지봉유설』의 예원지에는 조경식물 65종에 대한 특성과 재배법이 기술되어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시대 조경 관련 문헌의 책 이름, 편명, 수록 식물 수와 내용을 서로 정확히 대응시키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양화소록』은 조선 전기 화훼 재배와 괴석 배치까지 다룬 대표적 원예서이다.
『산림경제』는 생활경제 계통의 농서이며 화훼 관련 내용은 '양화편'에서 다룬다.
『임원경제지』는 서유구의 백과적 실용서로, 원예 관련 내용은 '예원지'에 체계적으로 실려 있다.
『지봉유설』은 이수광의 유서로, '예원지'라는 편명으로 조경식물 재배를 정리한 책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양화소록』에는 정원식물의 특성, 번식법, 괴석을 놓는 법, 꽃 가꾸는 법 등이 실려 있어 서술이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산림경제』의 훼훼편'과 '19종'이라는 표현이다.
『산림경제』에서 화훼 재배를 다루는 편명은 보통 '양화편'으로 잡으며, 19종 식물의 특성 설명으로 정리하는 방식도 맞지 않는다.

③ X
틀린 부분은 '『임원경제지』의 양화편'과 '29종'이라는 표현이다.
『임원경제지』는 '양화편'이 아니라 '예원지'에서 원예와 화훼 재배를 다루며, 29종 식물만 간단히 수록한 책으로 보는 것도 맞지 않는다.

④ X
틀린 부분은 '『지봉유설』의 예원지'라는 표현이다.
'예원지'는 『지봉유설』이 아니라 『임원경제지』의 편명이다. 따라서 조경식물 65종의 특성과 재배법을 예원지와 연결하려면 책 이름도 『임원경제지』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비슷한 조선시대 문헌을 묶어 외우면 책 이름과 편명이 쉽게 뒤바뀐다. 특히 '양화편-예원지', '산림경제-임원경제지', '지봉유설-임원경제지'를 섞어 놓는 것이 대표적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경 관련 고전 문헌 문제는 먼저 책 이름과 편명이 맞게 연결되는지 본다. 그다음 식물 종수나 수록 내용을 대조하면 대부분의 오답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양화소록은 화훼와 괴석, 산림경제는 양화편, 임원경제지는 예원지, 지봉유설은 예원지가 아니다.

NoteBase

문 19. 보길도 윤선도 원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세연지의 저수를 위해 판석보라는 독특한 구조물을 이용했다.
ㄴ. 낙서재는 고산(孤山) 윤선도가 기거했던 집이다.
ㄷ. 곡수당 앞마당에는 고산(孤山) 윤선도가 달맞이하던 바위인 귀암이 남아있다.
ㄹ. 세연정이 내려다보이는 산 중턱에 낭음계가 위치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길도 윤선도 원림의 공간 구성과 주요 시설의 위치·기능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낙서재는 윤선도가 머물던 주거 공간이다.
세연정 영역의 세연지는 판석보를 두어 저수와 통행을 함께 해결한 수경 공간이다.
세연정을 내려다보는 산 중턱의 조망 공간은 낭음계가 아니라 동천석실이다.
귀암은 곡수당 앞마당이 아니라 낙서재와 관련된 거북 형상의 바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만 고르면 틀리다. ㄱ은 세연지의 저수를 위해 판석보라는 독특한 구조물을 이용했다는 뜻이므로 옳고, ㄴ도 낙서재가 윤선도가 기거했던 집이라는 설명이므로 옳다. 옳게는 ㄱ, ㄴ이다.
② O: ㄱ, ㄴ만 고른 조합이다. ㄱ은 세연지에 판석보를 두어 둑과 저수 기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맞고, ㄴ은 낙서재가 윤선도의 거처라는 점에서 맞다.
③ X: ㄷ이 틀리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곡수당 앞마당"이다. 귀암은 곡수당 앞이 아니라 낙서재 앞마당과 관련된 달맞이 바위이다. 옳게는 ㄱ, ㄴ이다.
④ X: ㄹ이 틀리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산 중턱에 낭음계가 위치한다"이다. 세연정을 내려다보는 산 중턱의 조망 공간은 동천석실이다. 옳게는 ㄱ, ㄴ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판석보를 구조물 이름으로 읽지 못하면 ㄱ을 틀리기 쉽고, 귀암과 동천석실의 위치를 곡수당·세연정 주변 시설과 뒤섞으면 ㄷ, ㄹ을 맞는 설명처럼 오인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림 문제는 각 공간의 기능을 먼저 나눈 뒤 판단한다. 주거 공간은 낙서재, 수경 공간은 세연정·세연지, 산 중턱 조망 공간은 동천석실처럼 위치와 기능을 짝지으면 조합형 선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낙서재는 거처, 세연지는 판석보, 산 중턱 조망처는 동천석실이다.

NoteBase

문 20. 조선시대 주택의 외부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안마당은 주택의 안쪽에 자리하기 때문에 중심성과 폐쇄성을 동시에 지닌다.

② 사랑마당은 바깥마당 또는 행랑마당과 연결해 개방감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적 넓게 꾸몄다.

③ 사당마당은 담장을 둘러 독립된 영역을 이루고, 화려한 수목으로 장식을 하였다.

④ 바깥마당은 넓게 트인 마당으로 놔두거나 작은 텃밭과 수로, 연못 등을 조성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시대 주택 외부공간의 성격 차이, 특히 안마당·사랑마당·사당마당·바깥마당의 기능과 분위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안마당은 가족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내부 중심 마당으로 중심성과 폐쇄성이 강하다.
사랑마당은 사랑채 전면의 공간으로 바깥마당이나 행랑마당과 이어져 비교적 개방적이다.
사당마당은 제례를 위한 독립적 공간으로 담장으로 구획하지만 장식은 절제하여 엄숙성을 유지한다.
바깥마당은 대문 가까운 외곽 공간으로 비워 두거나 텃밭, 수목, 연못 등을 두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안마당은 주택 내부에 놓여 가족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므로 중심성이 크고 외부 시선에서 차단되어 폐쇄성도 함께 지닌다.

② O
사랑마당은 사랑채 앞에 놓여 바깥마당이나 행랑마당과 연결되므로 안마당보다 개방감이 크고 비교적 넓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③ X
틀린 부분은 "화려한 수목으로 장식을 하였다"이다.
사당마당은 담장으로 둘러 독립 영역을 이루는 점은 맞지만, 제례 공간이므로 화려한 장식보다 소박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④ O
바깥마당은 가장 외곽의 실용적 공간이어서 넓게 비워 두기도 하고 작은 텃밭, 수목, 연못 등을 두어 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3번은 앞부분의 "담장을 둘러 독립된 영역"이 맞는 설명이어서 뒤의 "화려한 수목으로 장식"까지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다. 사당마당은 독립성보다도 제례 공간의 엄숙성과 절제성이 핵심이라는 점을 놓치면 오답에 걸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시대 주택의 마당 문제는 먼저 그 공간의 사용 주체와 기능을 구분하면 풀린다. 가족의 일상 공간이면 안마당, 손님과 남성 공간이면 사랑마당, 제례 공간이면 사당마당, 외곽의 실용 공간이면 바깥마당으로 잡고, 제례 공간에는 화려한 장식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안마당은 내부 생활 중심, 사랑마당은 개방적 접객 공간, 사당마당은 엄숙한 제례 공간, 바깥마당은 외곽의 실용 공간이다.

NoteBase